

### **쇼기 기물 산업 발전의 변천 수공업 시대(발생~메이지 말기)**

구번 시대, 가신의 부업으로 생산된 쇼기 기물은 확실한 판매 조직에 올라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기 기물의 생산이 산업으로 확립된 것은 메이지 유신으로 봉록을 처분당한 가신, 특히 나가야시키(長屋敷)에 살던 하급 가신들이 이미 부업으로 습득했던 쇼기 기물의 제조 기술(목지 만들기·기물 쓰기)을 활용하여 목지 장인·글씨 장인의 분업 형태로 쇼기 기물 만들기를 시작한 것에 기인합니다. 메이지에 들어서 도매업을 하는 자도 생겨나 현 내뿐만 아니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현 외에도 판로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초기의 쇼기 기물 제조는 가내 공업으로서 점차 그 기초를 다져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메이지 말기까지의 덴도의 쇼기 기물은 목지 장인·글씨 장인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 생산으로, 필기 기물만의 대중 기물이었으며, 조각 기물 중심의 오사카의 중급품부터 도쿄의 고급 기물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에 걸쳐 기물 목지 제조의 각종 기계가 고안되어 목지의 일관 생산이 시작되면 지역 도매상이 제품을 집하하여 도쿄나 오사카의 도매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상인은 제품을 매입하면 자신의 상점 상표를 붙여 전국에 판매했기 때문에 덴도 기물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지역 자본은 중앙 상인에 의한 선대(前貸) 형태의 계약 판매였으며, 생산자의 제품 가격은 모두 중앙 상인에게 지배되었습니다.